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20년 2월 10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구의회 발언대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을”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2월10일 열린 제2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과 성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먼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보고서 중 강북구가 2017년 건강 수준에서 모두 최하위인 5분위라고 밝히고 “기대수명은 강북구는 81.3세로 가장 긴 서초구의 84.2세보다 3년가량 차이를 보이며, 비만율은 강북구는 29.6%로 두번째로 높아 가장 낮은 송파구의 2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강북구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재추진과 ‘강북구,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의 나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먼저 구 의원은 지난 2012년, 2013년에



시행했다가 그 후 중단된 <토요 비만교실 ‘몸짱가족 탄생’ 프로그램>과 같은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재추진이 필요하다며 또한 강북구와 관내 학교가 상호 협력 지원하여 <어린이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교육지원 예산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사업개선 제안으로는 작년에 시행한 <강북구,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의 나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년에는 BMI(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수치가 25이상이거나 체지방율이 30%이상인 30~40대 여성구민 25명으로 국한했던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성인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동북일보 4면

5분 자유발언

강북구민의 건강상태 개선 및 건강 증진 위해 방안 제시

구 본 승 의원

무소속/미아동, 송중동, 번3동



구본승 의원은 제2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과 성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이용대상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했다.

구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보고서(2019.10.17.)에서 건강결과 지표와 건강결정 요인을 합산한 서울시 도시 건강지수를 기준으로 2017년 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강북구는 두 지표 모두 최하위인 5분위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고, 기대수명은 강북구는 81.3세로 가장 긴 서초구의 84.2세보다 3년가량 차이를 보이며, 비만율은 강북

구는 29.6%로 두번째로 높아 가장 낮은 송파구의 2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한 강북구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구본승 의원은 2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재추진이 필요성과 세부프로그램은 최초 비만도 체성분 검사 및 기초설문지 작성/ 심리활동으로 자녀와

부모의 유대법/ 둘레길 걷기 교실/ 요가교실 3회/ 음악 태권도체조 3회/ 음악줄넘기 2회/ 영양교육 5회/ 프로그램 평가 및 비만도 체성분 측정을 제안했다.

그 예로 노원구의 겨울방학을 맞아 ‘아동청소년 비만예방과 평생건강습관 만들기’ 건강관리프로그램, 구로구는 어린이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와 협력하여 등교시간을 활용한 달리기, 걷기 프로그램과 비만 위험군 어린이 대상으로 신체활동 교실을 운영 등을 들며 강북구에 알맞은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기획해 줄 것을 보건소에 요청했다.

둘째, 작년에 시행한 <강북구,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의 나이를 확대해서 성인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줄 것을 제안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ramail.net)

〈5분 자유발언〉

“구민 건강증진 집행부·의회 함께 고민해야”

구본승 의원, 전 연령대 참여 프로그램 등 제안

구본승 강북구의원이 10일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과 성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구 의원은 “강북구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며 두 가지 건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먼저 구 의원은 2012, 2013년 시행됐다가

중단된 <토요 비만교실 ‘몸짱가족 탄생’ 프로그램>과 같은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재추진을 주문했다.

당시 강북구는 세부프로그램으로 최초 비만도 체성분 검사 및 기초설문지 작성/ 심리활동으로 자녀와 부모의 유대법/ 둘레길 걷기 교실/ 요가교실 3회/ 음악 태권도체조 3회/ 음악줄넘기 2회/ 영양교육 5회/ 프로그램 평가 및 비만도 체성분 측정 등을 진행한 바 있다.

구 의원은 두 번째로는 <강북구,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 나이 대 확대를 제안했다.

구 의원은 “작년에는 프로젝트 참여를 BMI수치가 25이상이거나 체지방율이 30%이상인 30~40대 여성구민으로 국한했다”면서, “올해부터는 이를 확대해 보다 많은 구민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했다.



▲구본승 강북구의원

서울포스트 4면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 및 성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대상 확대 필요성 제기



지난 10일 열린 강북구의회 제 23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본승(미아동, 송중동, 번3동)의원이 ‘강북구 도시공원 활용 건강프로그램 연구개발과 구민, 아동 비만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구본승 의원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과 성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의 이용대상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기 위해 2019년 10월 17일,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강북구의 기대수명은 81.3세로 가장 긴 서초구의 84.2세보다 3

년간 차이로 보이며 비만율은 강북구는 29.6%로 두번째로 높아 가장 낮은 송파구의 2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히고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했다.

구 의원은 첫번째 사업제안으로 지난 2012년, 2013년에 시행되었다가 그 후 중단된 토요 비만교실 ‘몸짱가족 탄생’ 프로그램과 같은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재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세부프로그램과 타구의 좋은 사례를 발표하고, 두번째 사업개선 제안으로는 작년에 시행한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 나이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성인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 '5분 자유발언'

“건강한 강북구 만들기 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필요”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지난 10일 열린 제23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 추진과 성인 다이어트 프로그램 이용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구본승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보고서 중 강북구가 2017년 건강 수준에서 모두 최하위인 5분위라고 밝히며 “기대수명은 강북구는 81.3세로 가장 긴 서초구의 84.2세보다 3년가량 차이를 보이며, 비만율은 강북구는 29.6%로 두번째로 높아 가장 낮은 송파구의 21.6%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본승 의원은 “강북구민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서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며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재추진과 ‘강북구,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의 나이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구본승 의원은 “지난 2012년, 2013년에 시행됐다가 그 후 중단된 토요 비만교실 ‘몸짱가족 탄생’ 프로그램과 같은 어린이청소년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재추진이 필요하다”며 “강북구와 관내 학교가 상호 협력 지원하여 ‘어린이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을 교육지원 예산으로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구 의원은 “사업개선 제안으로는 차년에 시행한 ‘강북구, 건강한 다이어트 100일 프로젝트’의 이용 대상의 나이대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구본승 의원은 “작년에는 BMI(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 수치가 25이상이거나 체지방율이 30%이상인 30~40대 여성구민 25명으로 국한했던 이 사업을 올해부터는 더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구민이 이용하길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며 “성인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비만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영일 기자